



2020년 5월 29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29(금)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5. 29(금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
담당과장	이귀현 과장(044-203-4020) 오성운 과장(044-201-4259) 심재윤 과장(042-481-4387)	담당자	이주노 사무관(044-203-4022) 권시홍 사무관(044-201-4273) 이상훈 사무관(042-481-4355)

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2차 특별 전세기 편성운항

- ◇ 중국 충칭(4.29), 인도네시아 자카르타(4.29)에 이어 일본 도쿄(5.29), 독일 프랑크푸르트(5.30)에 2차 특별 전세기 운항
- ◇ 관계부처, 민간기업 등이 한팀으로 협업하여 수출물류 애로 해소
- ◇ 기업 건의를 반영, K-방역 제품인 방호복 운송에 객실內 천정 수하물칸 활용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,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)는 한국무역협회(회장 김영주)와 함께 코로나-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도쿄(5.29)와 독일 프랑크푸르트(5.30)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하였음

《 2차 특별 전세기 운항 개요 》

구분	인천 → 일본 도쿄(나리타 공항)	인천 → 독일 프랑크푸르트
일시	5.29(금) 10:00	5.30(토) 12:00
항공사	대한항공 여객기	아시아나항공 여객기
주관 물류사	(주)한진	(주)팩트라인터내셔널
물량	10개 기업 약 17톤 (화장품, 제조용 로봇 등)	12개 기업 약 23톤 (방호복, 자동차 부품 등)
운임 (시장운임의 75%)	1,200원/kg	6,500원/kg

- 산업부는 지난 4.29일 1차 특별 전세기를 긴급 편성하여 중국 충칭,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반도체 부품, 공기청정기, 진단키트 등 약 36톤의 수출 화물을 운송하였으며,
 - 당일 성윤모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특별 전세기 운항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수출지원기관, 수출입기업 및 물류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「수출상황 현장점검회의」를 개최한 바 있음

- 금번 2차 특별 전세기 편성·운항도 1차 특별전세기 운항과 마찬가지로 수출기업의 현장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, 유관기관, 민간기업 등이 한팀으로 협업하여 수출물류 현장애로를 해소해옴

- 항공사는 유휴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, 수출기업은 항공 운송 기회가 확대와 함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, 국제물류 주선업체(이하 포워더사)는 역량을 제고하고 시장을 개척하여 3자 모두 윈-윈(Win-Win)하는 효과를 창출함

- 특히, 5.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向 특별 전세기에는 약 13톤의 방호복이 운반되며, 이중 약 850kg은 여객기의 객실 내 천정 수하물칸(오버헤드 빈)에 실어서 운반될 예정임

- 객실 내 화물 적재는 지난 4.29일 「수출상황 현장점검회의」에서 민간 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국토부와 항공사, 포워더사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 것으로,

- 국토부는 그간 항공업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염포장요건 완화방안 등 비어있는 여객기 객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을 활발하게 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
 - * 「여객기의 화물 수송 허용 관련 안전기준」(국토부, 4.9)에 따라 최근 여객기 객실 내 오버헤드빈에 마스크를 적재하여 중국 대련으로 운송(5.7)
 - ** 6월부터는 오버헤드빈 외에도 좌석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도입하여 시행 예정(대한항공)

- 또한 정부는 수출입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특별 전세기 운항과 마찬가지로 특별 전세기 이용요금을 현재 시중운임의 75%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하고, 국가별로 전문성을 갖춘 포워더사 주관으로 수출기업의 화물 운송을 추진함
- (운임) 최근 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항공운임 보조사업 예산과 무역협회의 무역진흥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함
- (도쿄) 일본 도쿄(나리타 공항)은 '(주)한진'이 주관하였으며, 10개 수출기업의 전자상거래 제품, 화장품, 의류, 제조용 로봇 등 약 17톤의 물량이 운송되었으며,
- (프랑크푸르트)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'(주)팩트라인터내셔널'에서 주관하여, 12개 수출기업의 방호복, 자동차 부품, 전자부품 등 약 23톤의 물량이 운송될 예정임
- 산업부는 코로나-19 확산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한 「긴급 물류대책반」을 지난 4월부터 「수출입물류 대책반*」으로 확대·운영하고 있으며,
 - *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, 관계부처,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참여
- 해운, 항공운송, 통관 등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부, 해수부, 관세청,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, 무역협회, 코트라, 증진공, 항공협회, 선주협회, 국제물류협회, 통합물류협회 등 관련기관, 포워더사, 항공사 등 민간기업과 유기적으로 대응해왔음
-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“이번 특별 전세기 운항이 코로나-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항공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애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,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으며,

-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“여객기 내 화물 운송을 위해 이미 지난 4월 안전기준을 수립하여 항공사에 배포한 바 있으며,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 지원하고 있다”라고 하면서,
 - “특히, 화물기와는 다른 여객기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한 방염포장 요건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항공사가 객실 내 빈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”고 말함

-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“특별 전세기에 대한 추가 수요, 객실내 화물 적재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지난 「수출상황 현장점검회의」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를 반영하여 이번 2차 특별 전세기를 편성하였으며, 이는 1차 특별 전세기 운항에 이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, 기업이 한팀으로 협업하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 사례”라고 언급하면서,
 - “코로나-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입국제한 등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수출 기업들은 불요불굴(不撓不屈)이 뜻하는 바와 같이 멈추지 않고, 흔들림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힘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이주노 사무관(☎ 044-203-40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